

# 한돈농가 생산성[MSY] 향상방안



사육 대 한 한 돈 협 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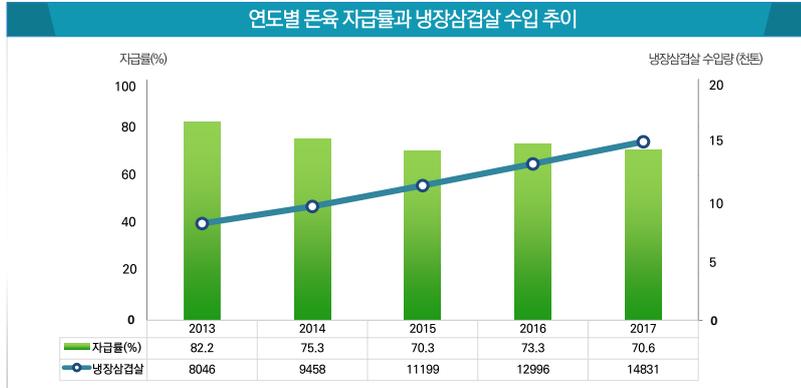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축산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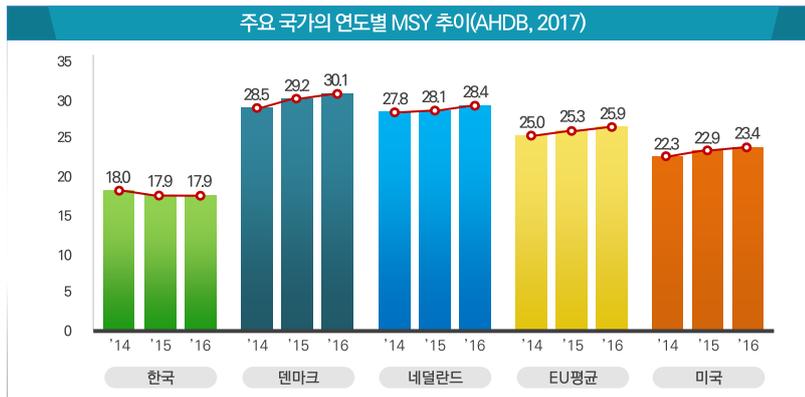
## MSY 현황과 문제점

○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 농가 수 확대를 통한 공급량 증가에는 한계가 있어 자급률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두당 지육 생산량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노력할 때입니다.

○ 그러나 세계적으로 높은 지육단가로 인해 자급률 저하가 계속되고 있고, 냉장삼겹살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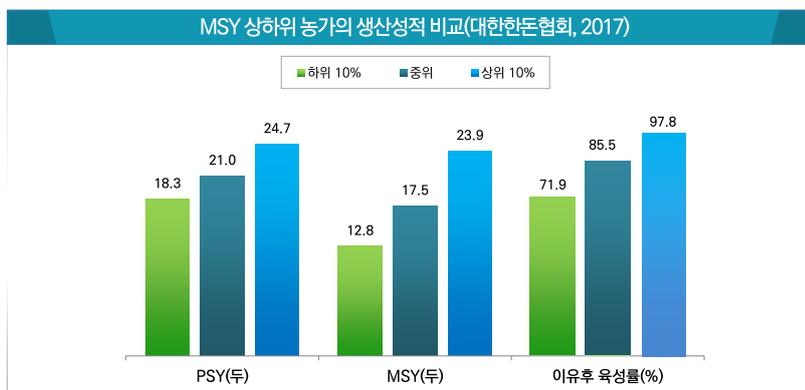


○ 이 상황에서 우리 농가의 평균 MSY는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도 상위 10% 농가는 선진국 수준인 MSY 24두, PSY 대비 MSY 차이(0.8두)도 매우 적어 하위농가의 MSY(특히 이유후 육성률)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가 전체 평균 MSY 향상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유후 육성률(%) : 한국 86.6, 네덜란드 97.7, 덴마크 96.7, 미국 95.1



○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최근 다산성 모돈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돈, 사양 및 번식관리, 시설·환기, 질병 예방, 농장 경영 등 사육 전반에 걸쳐 농가간 수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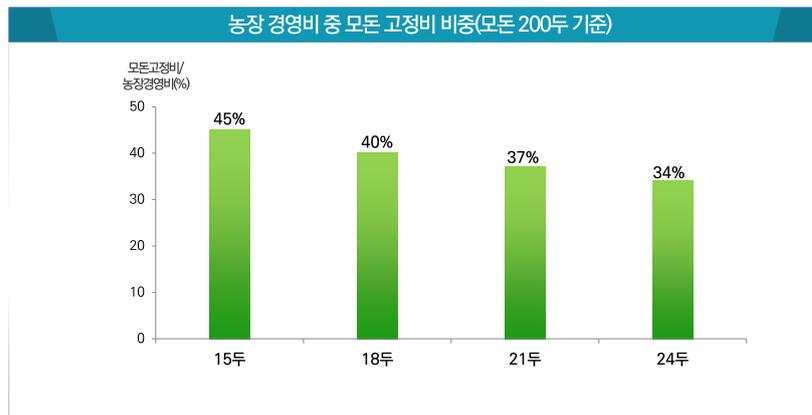
○ 따라서 MSY 하위농가의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MSY에 영향을 주는 구성 요소별 상위 농가의 사육 및 경영 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위농가에서 우선적으로 실천 가능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MSY 향상과 농장 수익성 관계

○ 동일 모돈 두수를 가진 농장이라도 비육돈 두당 수익성과 농장 수익성은 MSY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익성은 비육돈 매출 수입(연간 출하두수×지육 단가)과 비육돈 사육 경비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 일괄 사육농가에서 모돈에 투입되는 비용은 농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연간 모돈 두당 약 23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지만 전체 경영비중 모돈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MSY가 높을수록 낮아집니다.



○ 모돈 200두 농장 기준으로 kg 당 지육단가(탕박기준)가 4,300원 및 4,000원일 때의 비육돈 두당 순수익과 연간 농장 순수익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

○ MSY 15두와 21두 농장의 비육돈 두당 순수익은 지육단가가 4,300원일 때 각각 1만 9천원과 6만 3천원, 지육단가가 4,000원일 때는 -6천 8백원, 3만 7천원으로서 지육단가와 관계없이 MSY 1두당 평균 4만 4천원 차이가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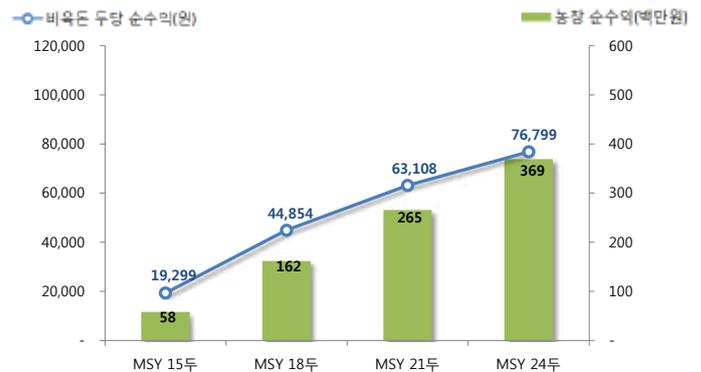
○ 모돈 200두 기준 MSY 15두와 21두의 6두 차이는 52.8 백만원의 비육돈 두당 순수익 차이를 발생시킵니다(비육돈 출하두수 차이 1,200두×4만 4천원).

○ 그러나 모돈 고정비를 감안한 연간 농장 순수익으로 보았을 때는 지육단가가 4,300원일 때 MSY 15두와 21두 농장의 수익 차이는 207백만원, 지육단가가 4,000원일 때는 수익차이가 175백만원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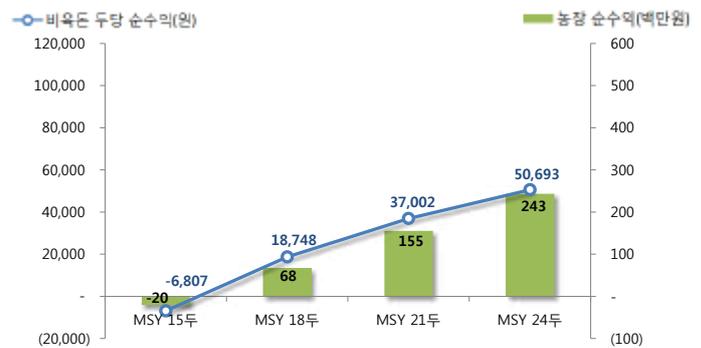
○ 즉, MSY 차이에 의한 수익변화는 비육돈 출하 매출액이 아닌 모돈 고정비를 감안한 농장 순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MSY 상하위 농장간 순수익 차이는 지육단가가 높을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 결국 중하위농가가 낮은 지육단가에서 농장 순이익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기 농장의 MSY 구성요소별 약점 중에서 중요도가 높으면서 비용 최소화가 가능한 우선 해결사항을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모돈 200두 농장의 MSY에 따른 연간 순수익 변화



\* 탕박지육 단가 4,300원/kg 기준



\* 탕박지육 단가 4,000원/kg 기준



## MSY 성적 상하위 농가의 관리 수준

○ MSY 상하위 농장의 사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분야에 걸쳐 하위농가의 사육수준이 상위농가의 7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농장경영 수준은 상위농가의 58%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분	배점	MSY 상위농가(A)	MSY 하위농가(B)	A/B(%)
사양관리	21	16.9	12.4	73.3
질병예방	23	21.3	13.9	65.3
시설환경	21	18.4	15.6	84.8
번식기술	19	14.7	11.5	78.2
농장경영	16	14.3	8.4	58.7
계	100	85.6	62	72.4

○ 관리 분야별 MSY 상하위 농장 수준 차이





## MSY 성적 상하위 농가의 관리 특성

### ■ 후보돈 관리 ■

항 목	MSY 상위농가	MSY 하위농가	차이
구입 기준	다산성, 포유능력	수태율	다산성 모든 관리능력
격리돈사 설치	설치	미설치	부지, 비용, 의지
격리·순치 기간	2~3개월	1~2개월	질병 안정화 의지
초종부 일령	240~270일령	최대 235일령	연산능력, 산자수 개선, 발정유도 기술
초종부 체중	140~150kg	130~140kg	연산능력, 산자수 개선, 발정유도 기술

### ■ 정액 관리 ■

항 목	MSY 상위농가	MSY 하위농가	차이
정액 선택	AI센터에 특정 정액 지정	AI센터 권장 정액 구입	웅돈 번호 기록·분석
품질 검사	정자활력 정기검사	미실시/문제발생시	수태율 제고 의지

### ■ 발정관리 및 종부 ■

항 목	MSY 상위농가	MSY 하위농가	차이
발정유도	조도관리+웅돈접촉	웅돈 접촉	수태율 개선 의지
심부주입기	대부분 활용	활용 미흡	기술력, 산자수 개선 의지
미발정시 조치	웅돈접촉+돼지이동 +발정유도 호르몬제	발정유도 호르몬제+절식	효과성 검토

### ■ 분만 관리 ■

항 목	MSY 상위농가	MSY 하위농가	차이
유도분만	일괄분만 및 간호분만	폭염 및 분만 지연시 실시	관리 체계
분만전 위생	철저	미흡	인력, 비용
분만간격 체크	기록	미기록	모든상태 이해도
자돈 체온손실 방지	수분제거 후 파우더 처리	수분 제거만 시행	관심도

### ■ 포유 관리 ■

항 목	MSY 상위농가	MSY 하위농가	차이
대리모 특성	자돈수 적은 초산돈	자돈수 적은 경산돈	초산돈 확보 능력
분만틀 조정	앞·뒤 좌·우 조정	좌·우 조정 또는 조정 불가	자돈 폐사율
포유 기간	28일)21일	21일)28일	자돈 면역



■ 이유 관리 ■

항목	MSY 상위농가	MSY 하위농가	차이
사료/음수	급이기/급수기 추가	급수기 추가	기대치
니플 설치	10두당 1개	15두당 1개	기대치
물통 청소	매일	주1회 또는 월1회	관심도, 인력
위축돈 조치	원인 규명 후 격리	즉시 격리	폐사율

■ 질병 예방 ■

항목	MSY 상위농가	MSY 하위농가	차이
PRRS 검사주기	정기적 검사	미시행 농가약 40%	컨설팅 방문
질병예방 방법	주기적 혈청검사	구충/백신 프로그램 위주	질병관리 수준
농장내·외이동 동선	구분	미구분	방역개념
사료 및 분뇨 차량	지정 차량 운용	차량 지정 미흡	농장 규모
초종부 일령	240~270일령	최대 235일령	연산능력, 산자수 개선, 발정유도 기술

■ 위생 관리 ■

항목	MSY 상위농가	MSY 하위농가	차이
축사시설 및 기구 소독	수시	월 1회	관심도, 인력
사료 급이라인 청소	수시	월 1회 또는 미 실시	관리체계, 인력
음수 및 급수라인 소독	실시	실시 미흡	관리체계

■ 돈사 시설 관리 ■

항목	MSY 상위농가	MSY 하위농가	차이
돈사 형태	무창 위주	유창 위주	농장규모, 2세
시설 연식	5년~10년	20년 이상	현대화사업
환기 방식	음압 선호	혼합방식(양압, 음압, 중압)	시설 수준
먼지 관리	중압으로 공기교환율 유지	안개 분무에 의존	관리체계

■ 약취 관리 ■

항목	MSY 상위농가	MSY 하위농가	차이
사양단계별 사료급여	3단계 이상	2단계 위주	사양매뉴얼
사육밀도	적정 밀도 유지	일부 밀사	질병, 시설
올인올아웃 청소	피트내 분뇨 제거후 실시	피트내 분뇨 제거없이 실시	인력, 비용
슬러리 피트 관리	피트내 여유공간 30cm 이상	피트내 여유공간 30cm 미만	분뇨처리



■ 농장경영 ■

항목	MSY 상위농가	MSY 하위농가	차이
모돈 교체율	45~50%	35% 미만	비용, 의지
후계자 지정	대부분 지정	거의 미지정	규모, 시설
목표설정/정보공유	정기적으로 시행	비정기적/문제 발생시	컨설팅 유무
기록 방식	전산 관리	수기 관리	의지, 컨설팅

■ 직원관리 ■

항목	MSY 상위농가	MSY 하위농가	차이
직원교육	정기적	비정기적	규모, 컨설팅
교육방식	컨설팅/외부세미나	농장주가 직접 교육	규모, 의지
교육 수단	직접 구술+ 영상교육	직접 구술 위주	컨설팅 유무

## 한돈 생산성 향상 방안

### ■ 사양관리

#### 농장실정에 맞는 후보돈 공급방식을 택해야 한다

생산성 상위농가와 달리 하위농가는 폐쇄 돈군 운용을 위한 후보돈 자체 생산 관리가 미흡하므로 질병관리가 우수한 종돈장으로부터 농장 실정에 적합한 후보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후보돈 격리 순치 기간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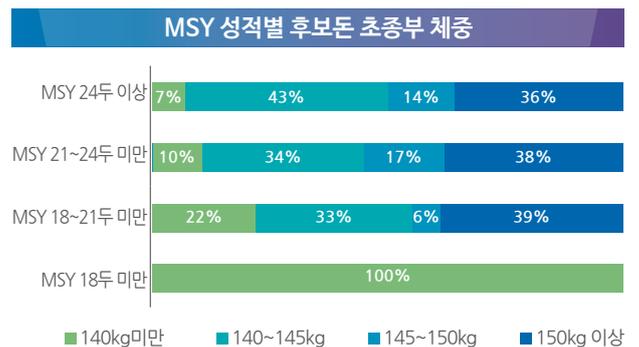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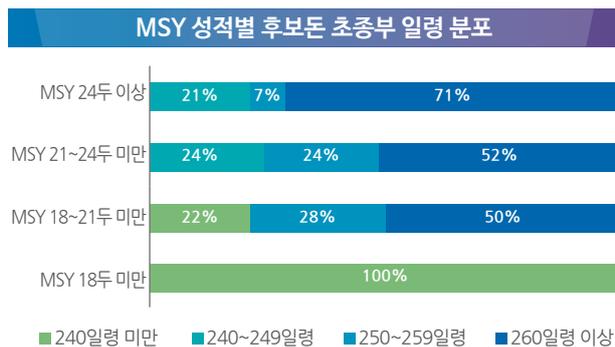
생산성 하위농가에서는 후보돈 격리 순치 과정이 1~2개월로 비교적 단기간 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최소 9주 이상(최소 격리 3주, 질병노출 1주, 회복 최소 5주)의 환경적응이 필요하며, 출입자를 한명으로 지정하여 차단방역 효과를 높여 나간다.



| 체계적인 후보돈 관리 |

#### 초종부 시점을 좀 더 늦게 가져간다

후보돈의 체성숙과 성성숙이 안정되지 못한 시기에 초종부가 되면 초산돈은 극심한 2산차 증상을 겪게 된다. 생산성 하위농가에서 이른 초종부로 인해 연산성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초종부 150kg/260일령을 지킨다면 핵심 산차에서 더 많은 산자수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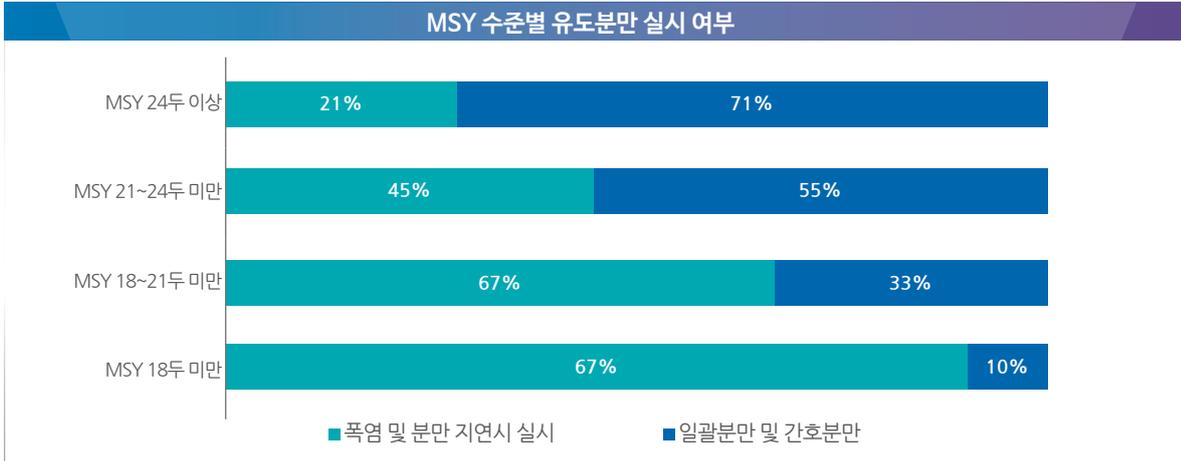


### 임신초기에도 영양관리를 충실히 해야한다

다산성 모돈은 높은 산자수 만큼 포유 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유 후 임신 초기에 빠른 체형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임신 중기까지 사료를 증량 급여하는 것이 차기 산차의 성적 개선에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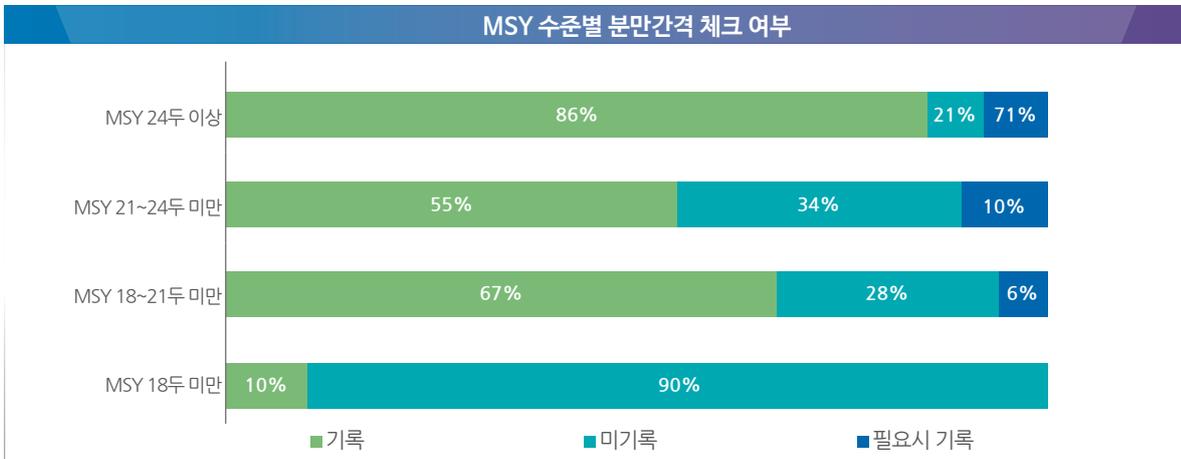
### 유도분만을 통한 간호분만 및 양자관리가 필요하다

생산성 하위농가에서는 인력부족 등으로 간호분만이나 양자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신생자돈에게 반드시 필요한 초유 급여 관리가 미흡하다. 정확한 분만시점을 확인하여 주간 유도분만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분만 시간을 기록 분석하여 모돈의 능력을 파악한다

생산성 하위농가에서 좀처럼 하지 않는 분만 시간과 분만 간격을 체크하면 난산 유무 확인으로 간호분만과 초유급여 등 분만 초기 관리에 사전 대응 할 수 있고 차기 산차에 앞서 도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잘 활용하면 번식성적에 큰 도움이 된다.



### 분만틀 조정은 사고율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생산성 하위농가는 조정 불가능한 분만틀이 설치된 농장이 많은데 압사 방지책이나 길이와 너비 조정 기능이 있는 분만틀은 자돈압사나 사고를 확실히 줄여 주므로 사고율 방지를 위해 도입할 가치가 있다.



| 길이와 너비 조정 기능이 있는 분만틀 |



### 간호분만을 실시하여 실산자수부터 높여야 한다

간호분만은 분만과정에서 생기는 자돈 폐사율을 크게 낮추어 주므로 생산성 하위농가에서 이를 실천 한다면 현재보다 높은 실산자수 뿐만 아니라 포유 중 폐사율을 줄여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

### 자돈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

분만직후의 분만사 바닥 습기 제거는 자돈 체온손실 방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 수분 제거 후 흡습파우더 처리로 확실하게 한다. 비용적인 문제로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는 생산성 하위농가는 초기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흡습파우더로 처리된 신생자돈 |

### 포유 조력으로 자돈 면역력을 균등하게 갖추어야 한다

생산성 하위농가는 포유조력을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초유가 자돈의 수동면역을 갖추는데 큰 기능을 하고 이는 곧 농장성적과 직결되므로 농장실정에 맞는 포유조력 방법을 찾아본다.



| 주사기를 이용한 신생자돈 초유급여 |

## ■ 정액관리 및 증부

### 농장 여건에 맞는 정액공급방식을 택해야 한다

위생수준이 높은 정액을 자가 생산하는 전문화된 농장과는 달리 생산성 하위농가의 경우 AI센터를 통해 양질의 정액을 공급받고 자가 생산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미흡한 분야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 웅돈번호 기록으로 정액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생산성 하위농가는 AI센터에서 주는 대로 정액을 받는 농가가 많은데 웅돈 번호를 기록하고 해당 웅돈의 정액 품질과 유전력을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농장에 적합한 정액을 직접 선택하면 농장 생산성적을 향상할 수 있다.



| 웅돈 귀에 부착한 식별번호 |

### 정액품질관리로 수태 실패를 방지해야 한다

품질검사를 위한 현미경 구비가 어려운 농가에서는 AI센터를 통해서라도 검사 결과를 알아야 하며, 정액 보관고는 외부 온도 컨트롤이 가능한 실내로 배치하고 최고최저온도계를 설치하여 수시로 정상가동 여부를 체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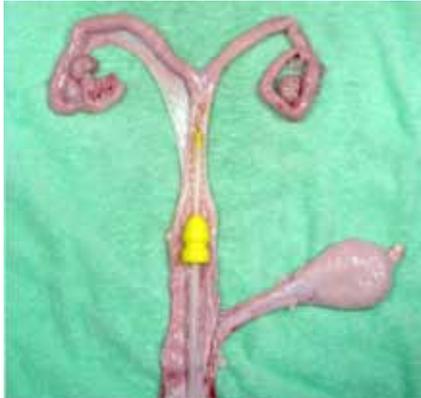


| 정액보관고의 디지털 온도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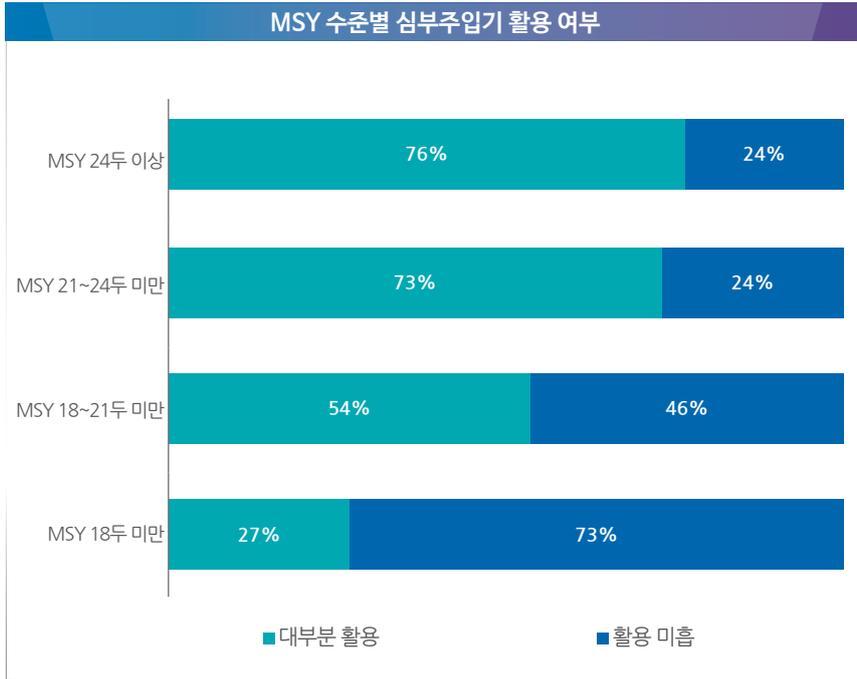


### 수태율 개선을 위해 심부주입기의 활용이 필요하다

최근 심부 주입기 활용 기술과 성공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생산성 하위농가에서는 비용 및 기술적인 이유로 심부주입을 주저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사용법을 숙지하면 교배시간 단축과 산자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자궁내 심부주입기 적용 위치 |



### LED 전구는 발정 유도에 효과적이다

전구 교체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삼파장 램프나 백열등을 주로 사용하는 농가가 생산성 하위농가에서 많지만 교배사와 임신사의 발정유도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조도(200~300럭스)를 내기 위해서는 LED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 임신사내 LED 설치 |

### 철저한 영양관리를 통한 미약발정을 예방할 수 있다

재귀일령 단축과 배란 증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과 강정사양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실행이 어렵더라도 권장되는 사양관리 방식을 충실히 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영양관리 외에도 새벽 5시 이전에 이유를 시켜 강하고 빠른 재귀발정을 유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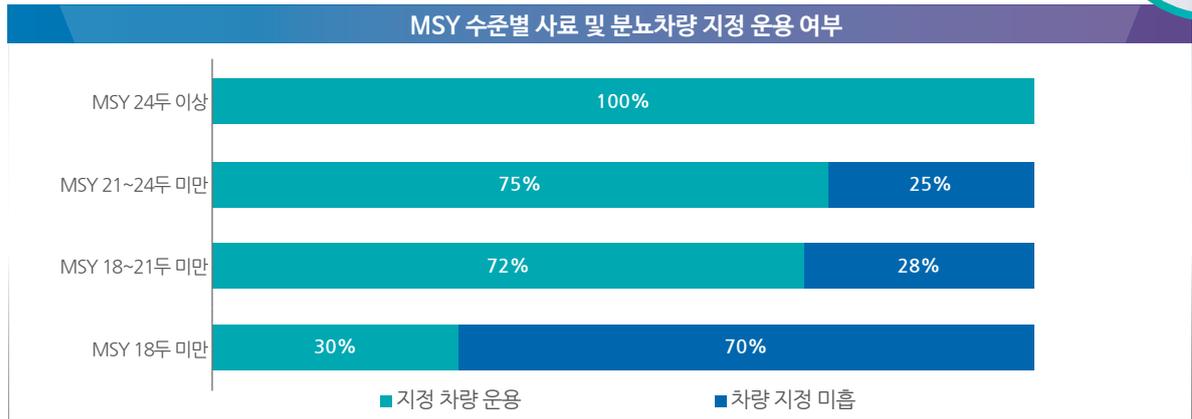
## ■ 질병예방

### PRRS는 컨트롤이 가능한 질병이다

PRRS는 대부분의 농장에 상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PRRS를 안정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사를 실시하여 PRRS 항원 검출시 분기별로 모돈에서 비육돈까지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농장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면 PRRS는 안정화시킬 수 있다. 깨끗한 농장이라도 정기적 검사를 권하며 유럽·북미형 타잎에 대해 모두 검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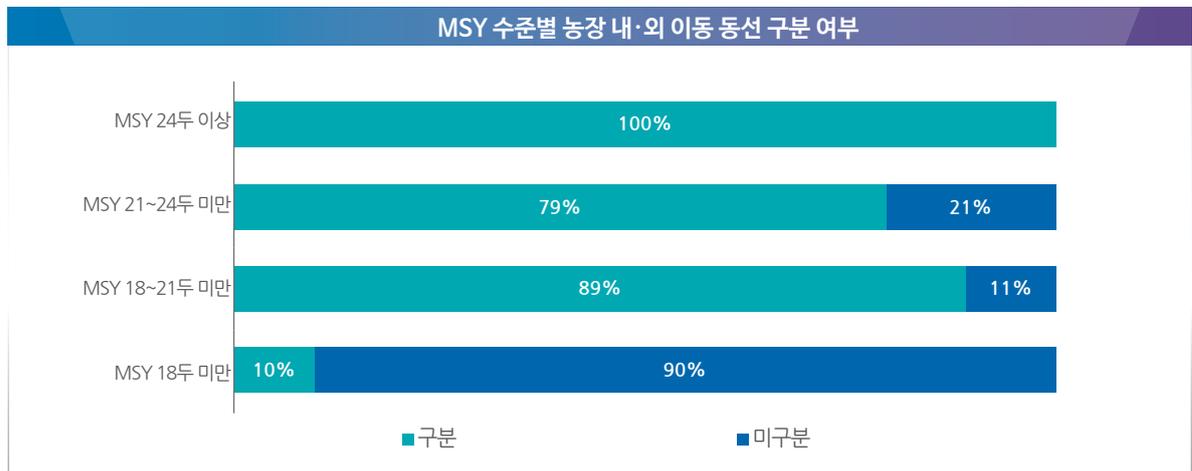
### 지정된 차량만 허용해야 한다

국내 양돈장은 이동통로가 좁아 차단방역에 취약하므로 지정된 차량만 허용해야 하지만 생산성 하위농가에서는 무분별하게 차량출입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염된 유기물의 차단을 위해 가급적 외부 차량이 농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 농장내·외 이동 동선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생산성 하위농가에서 부지면적 등 환경적 여건으로 이동 동선의 구분이 경우가 많지만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의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구분하여 철저히 통제해 준다. 불가피하게 오염지역에서 비 오염지역으로 이동 할 경우 철저히 소독과 샤워를 한 후 출입하는 차단방역시스템을 갖추어 준다.



### 농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생산성 하위농가에서는 위생관리 수준이 상위농가에 비해 낮은 편인데 소독은 농장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상 작업으로 최소 주 2~3회 이상, 가능한 한 잦은 빈도로 실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질의 중요성에 비해 생산성 하위농가들은 비교적 수질검사에 소극적인 편이다. 수질에 따라 돼지의 건강과 질병 상황이 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봄, 가을에 2회는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음수탱크와 음수라인의 위생상태도 함께 점검해 준다.



| 생석회를 도포한 분만사 |



| 이유자돈에 신선한 음수 공급 |



### 사료라인 급이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료는 입고 시부터 돼지가 섭취하는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료빈과 사료 이송라인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MSY 하위농가에서 크게 의식치 않고 있는 점으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하절기에 사료빈 비우기와 뭍침 방지, 사료라인의 공회전을 통해 곰팡이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기적인 사료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경영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의 위생 관리는 원가 절감에 중요하므로 생산성 하위농가에서도 사료 입고 시에 입자도와 냄새 등을 관찰하고 사료 섭취량을 점검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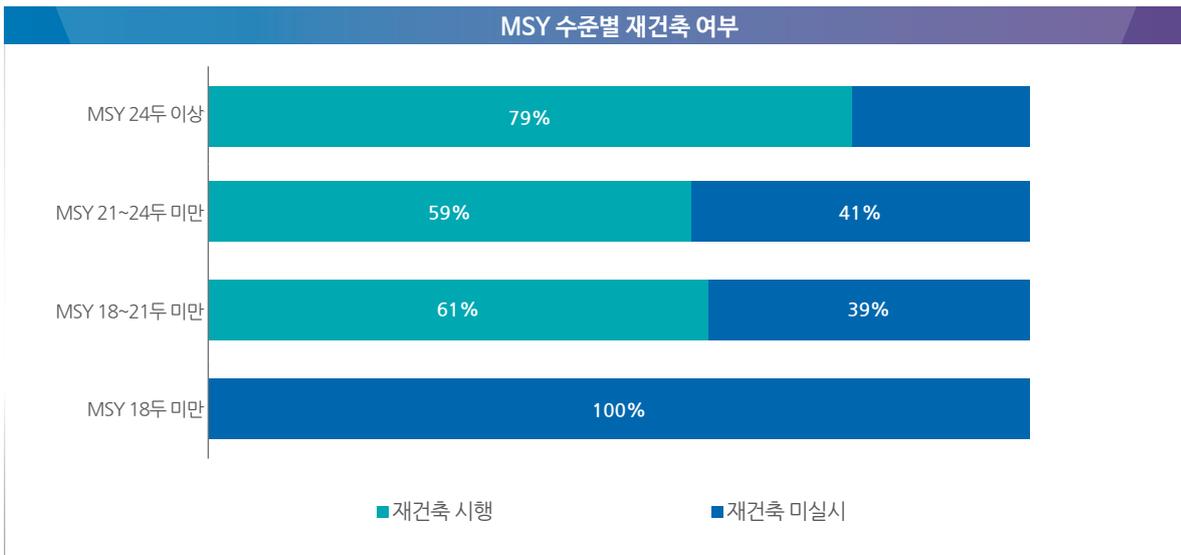
## ■ 돈사시설 및 환경

### 무창돈사가 환경관리에 유리하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환절기의 일교차가 큰 우리나라의 불리한 환경 여건을 제어하기 위해 수준 높은 시설에서 환경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생산성 하위농가도 향상된 모든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개보수를 통해 무창돈사화 할 필요가 있다.

### 극심한 노후화 시설은 개보수를 해야 한다

대부분 생산성 하위농가는 오래된 돈사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낡고 노후된 시설은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와 생산성 손실이 불가피하다. 생산성 하위농가는 고돈가에서도 낮은 수익성으로 적극적 투자가 어렵지만 우선순위에 따른 과감하고 효과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 나간다.



### 농장실정에 맞는 환기방식을 택하라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상 단열 수준이 낮거나 노후한 시설에서 음압 방식에만 의존한 환기는 특히 환절기와 동절기에 환기 사각 지대와 섯바람 등에 노출되어 매우 위험하므로 생산성 하위농가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음압 방식과 양압 방식이 주는 장점을 잘 이해하고 보완적인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환기 불량에 따른 비육돈 성장 둔화 |



**배기구가 입기구로 작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산성 하위농장의 경우 원치 돈사가 많으므로 자연환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벽체 환기보다는 굴뚝 환기 방식이 주를 이룬다. 축사의 배기구 후드를 위쪽을 향하도록 하여 외기의 영향으로 인해 받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역풍에 의하여 입기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 관리되어야 한다.



| 배기구 후드 상향 설치 사례 |

하절기 쿨링 시스템에 의한 자돈의 피해 보완이 필요하다. 여름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농가들이 다양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극복하고 있지만 자돈에 직접적인 바람이 가지 않도록 유속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포유자돈을 위한 분만사 유속방지 장치 |

**실내 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다.**

돈사 내 먼지가 많으면 작업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돼지의 스트레스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유발한다. 전면 콘슬랏 돈사는 건조해서 먼지 발생률이 높으므로 돈방세척과 물 뿌리기 외에도 중압으로 공기교환율을 유지함으로써 호흡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올인올아웃 후 고압수세로 악취를 줄여준다**

올인올아웃 실시는 돈사 내 소독, 세척, 건조과정을 통해 위생적 사육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사 내 청결유지를 통해 악취를 저감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올인올아웃이 어려운 농가는 소독, 세척, 건조가 불가능하여 악취에 취약하므로 농장실정에 맞는 소독 및 수세방법을 찾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올인올아웃 후 고압수세된 돈사 |

**슬러리를 자주 빼준다**

돈사 슬러리 피트 내 분뇨의 저장기간이 길어져 슬러리 피트 여유 공간이 적어지면 암모니아 가스뿐만 아니라 혐기 조건에 의한 황화수소의 발생이 증가하여 호흡기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슬러리를 가급적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액비화조를 늘려나가거나 근본적 해결방법인 액비순환시스템 적용을 검토해 본다.



| 여유공간이 확보된 슬러리 피트 |



### 적정사육밀도를 유지해 준다

밀사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돈사 내부 악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생산성 하위농가에서 밀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분뇨 발생량 증가와 축체에서 발생하는 냄새 때문이므로 가급적 돈방 당 사육두수를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 비육돈 밀집사육 사례 |

### 환기팬 소음관리와 환기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환기팬이 노후하면 먼지가 쌓이고 마찰로 인한 성능 저하와 소음이 발생할 뿐 아니라 환기량에 제약을 받는다. 환기팬의 날개, 모터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교체하거나 위치조정을 해 준다.



| 깔끔한 상태의 환기 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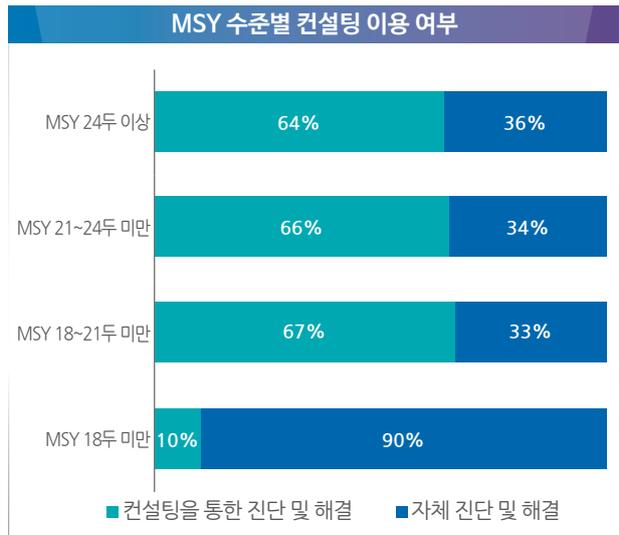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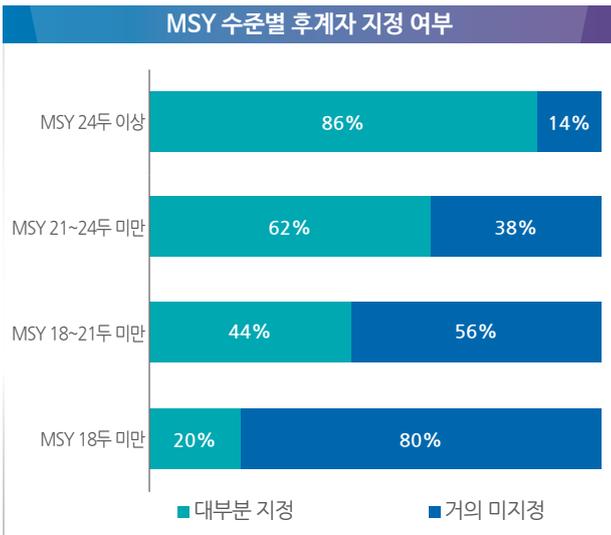
## ■ 농장경영

### 적합한 후계자의 지정으로 사업 승계를 준비해야 한다

후계자가 있을 경우 현대화사업이나 돈사 재건축 등 상대적으로 과감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이는 곧 성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생산성 하위농가 대부분이 후계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후계자가 없더라도 직계가족을 농장장으로 해서 경영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차선택이 될 것이다.

### 컨설팅을 통해 농장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돼지 생산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농장 간에 사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위농가들도 전문 컨설턴트를 적절히 활용하여 농장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 노력보다 목표설정과 소통이 우선하여야 한다

농장에는 숫자로 판단 가능한 수많은 지표가 있고 이러한 지표에 목표를 설정하면 막대한 노력을 방지하고 목표달성 시 성취감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하위농가에서도 정기적인 목표설정 회의를 가지고 목표점에 달성치 못한 이유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나간다.



###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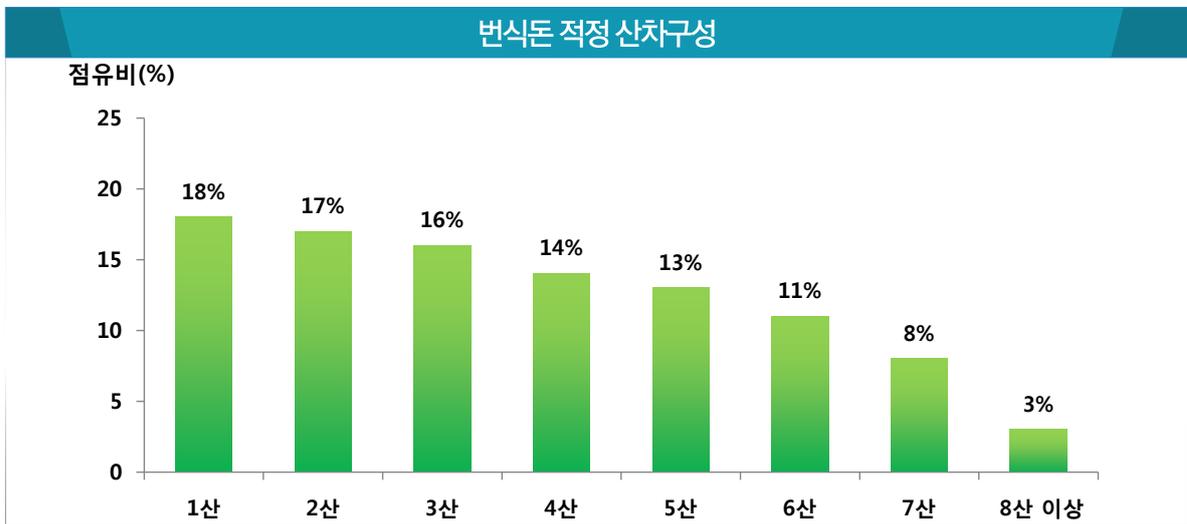
기록은 농장 현황을 파악하는 수단을 넘어 농장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고 다가올 사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생산성 하위농가에서 주로 하는 수기방식은 빠르고 정확한 원인분석이 어려우므로, 전산기록관리를 통해 농장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한돈팜스 전산기록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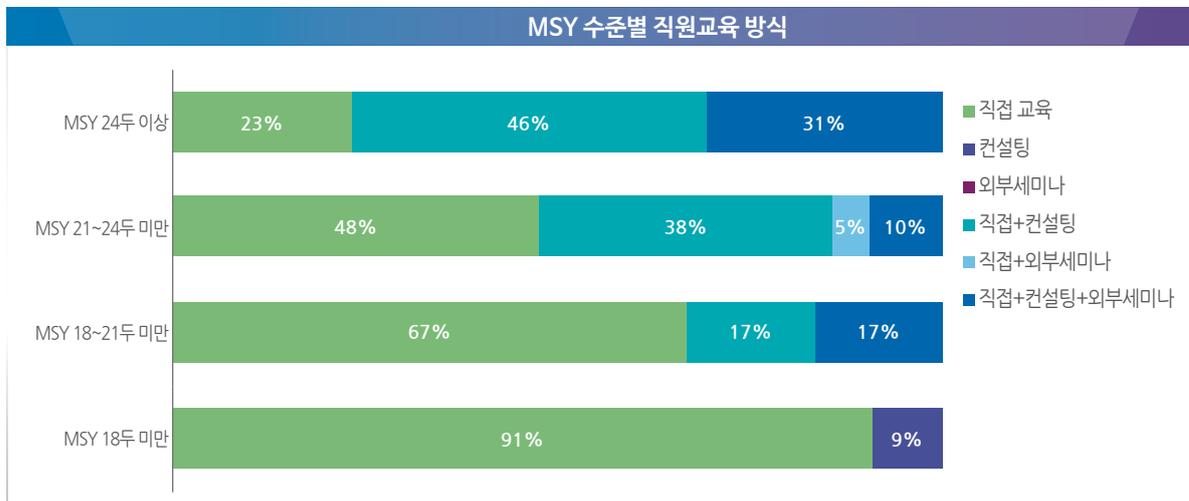
#### 모든교체율을 높여 적정 산차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교체율을 높이면 약품비, 사료비 등 지출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생산성 하위농가는 낮은 교체율로 인해 노산차 비율이 증가하여 농장 수태율과 포유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 상위농장에서 체미돈 발생시 과감하게 도태해 나가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직원교육과 관리는 맞춤형으로 하자

생산성 하위농가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는 비중을 높여 나간다. 한국어 구사능력이 미흡한 외국인 근로자 또는 관리수준이 낮은 내국인 근로자 모두 구술과 메모만으로 교육을 실시했을 때 경영자와 직원간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농장 수익과 직결시키기 위해서 하위농가에서도 영상교육 컨설팅 등을 강화시켜 나간다.





## 살균 대항한돈협회

0664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제2축산회관 3층  
TEL\_02-581-9751 FAX\_02-581-9768  
<http://www.koreapork.or.kr/>

본 연구용역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